
2024년 제1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



문화기반과

□ 심의개요

- 일 시 : 2024. 1. 25.(목) 14:00 ~ 16:45
- 장 소 : 시청 영상회의실(본관 2층)
- 참 석 : 위원 12명
- 주요내용 : 미술작품의 가격, 예술성, 건축물과의 조화 등을 심의
- 심의안건 : 6개소 12작품(조각 10, 회화 2 / 신규 8, 재심의 4)

□ 심의결과

- 12작품 중 가결 12작품 (원안 7, 조건부 3, 권고 3), 부결 0작품

연 번		설치장소	종류	작 품 명	이미지	심의결과		비고
건물	작품					가결	부결	
1	1	부평구 부평2동 760-700	조각	Lightflow		○		조건부 권고
	2		조각	Connected		○		
2	3	부평구 청천동 422	조각	Guardian		○		
	4		회화	Firecracker		○		
3	5	미추홀구 학익동 595-28	조각	On Stage		○		조건부
	6		조각	세상의 구조 IO-25-01		○		
	7		조각	PLAY MODULE		○		
4	8	남동구 논현동 677-5	조각	음악의 정원		○		조건부
5	9	청라동 157-11	회화	자연의 숨결		○		

연 번		설치장소	종류	작 품 명	이미지	심의결과		비고
건물	작품					가결	부결	
6	10	송도동 30-6	조각	밤하늘-별이 내린다!		○		권고
	11		조각	자연+생명+순환		○		
	12		조각	바다의 아이들		○		권고

□ 회의록

사회자 안녕하세요? 문화기반팀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1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실 위원님을 좌석 순서로 소개하겠습니다. ... 오늘 참석 인원은 총 열두 분입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 안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작품은 총 6개소, 12작품이며 조각 10작품, 회화 2작품입니다. 그리고 신규 8작품, 재심의 4작품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안전 총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점수표 작성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부에 드린 유인물 중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를 보시면 각 5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이 만점이며, 70점 이상이면 적합, 7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적합” 판정이 과반수인 경우에 해당 작품이 가결됩니다. 채점 시 7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실 경우에는 채점표 하단 비고란에 그 사유를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반수 이상 찬성하여 가결된 작품 중 특별히 안전성, 도시미관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 또는 “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집계 후에 위원님이 제시한 안전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서 원안 가결할 것인지, 조건부 또는 권고 가결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을 하게 되며, 해당 사유에 대한 의견 동의가 과반수 이상이면 가결됩니다. 참고로 “권고사항”은 군구와 심의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종료되지만, “조건부 가결”의 경우에는 향후 조건부 이행 여부를 심의위원님들께 서류를 통해 재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정확한 회의록 작성

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마이크를 가까이 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서약서의 내용처럼 오늘 심의된 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2(청렴서약서 제출)에 규정된 청렴서약서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건축물 미술작품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예술가들에게는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인의 전공 분야 뿐만 아니라 주변과의 조화와 공공 미술로서의 역할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시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 총 12명 중 12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1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작품채점, 집계 결과발표, 심의의결서 작성, 폐

회선언 순입니다. 작품 채점 순서는 작품별로 심의도서 검토 후 공개 질의, 위원별 채점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총 12 작품을 심의하겠습니다. 심의는 신규 아전 먼전 그리고 재심의 안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Lightflow>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평구 부평2동 760-700

1) <Lightflow>

사회자 예, 1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이 작품이 되게 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공간하고 활용을 좀 잘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조경과 그다음에 어떤 그림자의 역할을 충분히 잘하면서 주변과 어떤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고 봤습니다.

○○○ 참고로 아시겠지만 한 쌍 작품입니다. 두 개가 한 작품입니다.

○○○ 저는 잠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공공 디자인과 공공 미술의 어떤 경계에서 봤을 때는 공공 디자인성에서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요. 물론 그 경계라는 건 좀 모호하긴 하지만 과연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 시설물로서의 하나의 공공 디자인으로 봐야 될지, 공공 미술로 봐야 될지.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두 작품이 약간 그런 디자인 쪽에 너무 가깝, 그렇게 디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네, 또 의견 주시죠. 예.

○○○ 그 안전 쪽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높이가 한 3m 정도 되고, 이게 이제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에 지금 앵커가 19cm로 돼 있는데, 19cm는 상당히 좀 길이가 상

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 앵커에 대한 길이의 19cm 나온 것에 대한 그 근거를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상부가 스테인리스 미러, 그 문장으로 돼 있는데 거기가 눈이 와서 얼고, 녹으면서 좀 부드러움이 생길 우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저 천장 쪽에 스테인리스 미러라고 돼 있는 저 부분은 이렇게 레이저 컷 한 거죠?

○○○ 예, 예.

○○○ 컷을 해서 이렇게 투과 되게, 그렇죠?

○○○ 예, 예.

위원장 예, 예.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 설치하는 부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설치 부분. 설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서 기 어떻게 됐는지, 네.

위원장 예.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또 주시죠.

○○○ 이제 구심이 좀 너무 앞으로 쏠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 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저 스테인리스 미러의 그 역할이 밤에, 밤에 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 야경이요?

○○○ 조명이 나온다고 했는데.

○○○ 예, 테두리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조명은.

○○○ 아

○○○ 네, 저도...

위원장 네, 네, 말씀하세요.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 아, 네. 저도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하부에 이제 앵커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 그린 것 같습니다. 얇은 부분이나 지금 거대하게 서 있는 부분이나 앵커 길이가 똑같거든요.

이거는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데 이제 다른 작은 구조물들이랑 기초를 똑같이 했다는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네. 의견 없으신가요?

○○○ 그래픽이 사실은 이게 높이가 3m인데, 그래픽은 얼핏 보면 한 5m 정도 돼 보여서 더 그 안정성에 느낌이 좀 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3m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우리 사무실 천장 높이밖에 안 되는데. 뭐 디자인 하신 분들이 안정성에 대해서 제일 많이 생각했을 텐데 또 지적사항이 나오네요. 안전에 대해서 뭐 큰 문제없는 것 같다는 의견 혹시 있으세요? 위원님들.

○○○ 제가 볼 때는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다른 바닥에 있는 거와 똑같은 설치 방법보다는 좀 이렇게 이 밑에 세워지는 앵커나 아니면 어떤 그냥 우리 심이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거를 조금 더 보강해서 좀 길게 뽑으면 세워지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예, 안전 문제는 뭐 사실 작품 자체가 조형적으로 문제없이 받아들여진다면 안전 문제는 뭐 다시 조건부나 이런 걸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형성 있는 쪽에 이제 한번 ○○○ 위원님 말고도 조형성에 대해서 좀 의견 있으시면 좀 말해 주시죠.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 네. 앞서 ○○○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작품이 이 건축물 중에 그냥 하나 정도로 좀 보이거든요. 일부분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조화로운데 조금 아쉬운 점은 그런 부분이어서요.

조금 더 미술적으로, 예술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라는 조금 봤는데요. 28페이지 보시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조망이 되는데 아래에 지금 이렇게 뭐라 하지, 그 왼쪽에 있는 작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두 덩어리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 덩어리가 하나 정도 더 있어서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하나 하면은 조금 더 예술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좋은데, 약간 그런 아쉬움이 기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근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조형적인 부분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개선시킬 수가 있는 문제인데 이 조형적인 것은 사실 제한된 걸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조형적인 것에 대해서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말씀 없으시면요. 채점 할까요?

(“네” 하는 위원들 다수 있음)

(채점 중)

위원장

채점을 완성하셨으면 책상 우측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1. 부평구 부평2동 760-700

2) <Connected>

위원장

다음으로 2번 <Connected> 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2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본 작품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작품의 크기들이 보면 비슷비슷한 크기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어떤 조형성인데요. 물론 다양하게 여러 곳에 이렇게 놓여진다는 의미에서는 재미있는 요소도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디자인적 요소가 너무 강하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네요. 그리고 좀 크기를 좀 예. 여러 개를 놓는 것보다 몇 개를 줄여서 하나 정도는 더 큰 것이 놓여 졌으면, 어떤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우리 각 객체가 쌓여있는 게 형태가 지금 너무 불안해 보이고 그다음에 그 모양에 따라서 어떤 먼지 같은 것도 많이 낄 것 같고 사후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창의적인 면에서 종이 접기 책자에 나오는 그런 모양을 따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예, 그렇습니다.

○○○

네, 주름이 많아가지고 먼지가 잘 낄 것 같죠?

○○○

예.

○○○

저는 좀 사실은 약간 디자인적인 것도 있긴 한데 공공 예술에서 너무 또 예술 작품으로 자기의 작품으로만 유지하다 보면 공공성도 많이 해치기 때문에 저는 적당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 작품이 여기 보니까 이 작가가 기 설치되는 작품이 하나 이제 가결된 게 있는데 여기는 마구마구 이렇게 올려져있어서 오히려 이거는 조금 재미도 없어 보이긴 하지만, 가결이 됐지만, 이거는 조금 정리도 돼 보이고 그다음에 야경을 봤을 때 조금 빛으로 인해서 어떤 좀 알쌍하면서 선의 어떤 그런 구조,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사실 저는 되게 좋게 봤습니다.

위원장

네, 의견 계속 주시죠.

○○○

저기 34쪽 한번 해주십시오. 그 안전 쪽에서 봤을 때 제일 오른쪽에 있는 형태가 스테인리스를 다 이제 선풍기 커버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작품에서 제가 뭐 논할 건 없지만 제일 오른쪽 거는 높이가 제일 높은데 1.7m고, 중간 정도면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게 이제 스테인리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밑에 부분은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손목을 집어넣었을 때는 손목이 좀 낄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 공공 미술에 이제 우리가 실무를 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 공공미술에서 제일 중요한 팩트가 말 그대로 공공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작품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작품이 너무 예술성으로 치우치면 그야말로 이 공공성에 반하는 거고, 또 공공성으로 너무 가면 예술성에 반하는 거고.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작품성으로 가지 않았나.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합들이 오히려 모이면, 오히려 더 어떤 공공성에 더 시너지를 발휘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너무 산만하니까 공공성의 어떤 그런 개요를 조금 억지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소 좀 그런... 그러니까 이 공공미술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항상 포인트로 두고 봐야 되는데 너무 작품성으로 가버리면 저렇게 산만하게 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

네. 예, 약간 난삽하다는 의견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까 뭐 주름 모양이라서 먼지가 끼고 위험하다, 뭐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저렇게 펼쳐져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아까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더 와닿고요.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모여 있어서 가결된 작품이 있거든요. 다소 억지스러운 모습이 결점이었는데 이거 펼쳐놓으니까 또 그런 느낌

은 없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또 보이기도 하네요. 의견 또 자유롭게
주시죠.

○○○ 저도 안정성과 이제 관리 측면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
지만 저 길 따라서 놓여진 작품 공간 형성은 굉장히 흥미롭다고 보여
집니다.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작품 크기를 조금씩만 크게 해서 그
조잡스러움을 조금만 좀 완화시킬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그 저, 저도 한 말씀드리면 그 너무 주름이 많다는 거는 어쩌면 비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 기능적인 역할도 생각을 하는 측면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그 좀 조화의 면에서 너무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좀 약간 조잡스럽다라는 느
낌이 조금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정도를 좀
이렇게 잡아서 좀 통일성 있게 좀 배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히려 저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펼쳐놓을 거라면 형상은 사실
은 하나여도 무방했을 것 같아요. 하나의 형상으로 그 놓여진 방향이
달라지기만 해도 흥미로웠을 텐데 이 작가분은 이제 형상 자체도 변화
를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감
도나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거에서 이렇게 딱 우리 한눈에 볼 수 있게
볼 때는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조잡하거나 아
니면 뭐 너무 통일성이 없다거나. 근데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거기서
섰을 때 서서 보면 이제 지금 어린이나, 이 어른들처럼 그 장소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더 조금 더 뭐라 그럴까 긍정적인 인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의 눈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럼 이렇게 한 번에 싹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너무 이걸 통일성을 주면 ‘왜 여기 있지?’ 이렇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한눈에 보면 조금 아무렇게나 던져놓게 조잡해 보일 수도 있어도 이게 실제로 그 현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조금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그거에 또 지금 보면 이 선풍기 같은 거, 이런 디자인은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거기다 밀어 넣거나 하면 이제 약간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안전성도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뭐 디자인적이냐 아니면 뭐 조각적이냐 이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예술성이 더 있어서 공공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도 조금 뭔가 좀 선입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시점에서 보는 거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보는 거는 조감도인데 마치 하늘에서 새가 쳐다보듯이 보기 때문에 조감도인데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창문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 이렇게 이동하면서 볼 때는 전혀 다른 느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〇〇〇

이 작품이 최근 5년간 건축물 미술작품 이력서에 보면은요. 가결된 작품인데 이 덩어리들을 다 합해놓은 작품으로 이 가결이 된 작품이 있었어요.

〇〇〇

네, 탑 같이 세워놓은 거요.

〇〇〇

근데 이걸 그거를 그대로 해체만 시켜놓은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

걸 다 이 집합을 해가지고 한 작품이 가결이 된 작품이 있어요. 이 덩어리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는데 이번에서는 이것을 단지 해체만 시켜놔 가지고.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작품은 가결이 됐는데 이걸 해체가 되니까 오히려 더 산만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공성에.

위원장 예, 비교적으로 그렇게 보이죠. 최종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고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 점 중)

2. 부평구 청천동 422

3) <Guardian>

위원장 자, 다음으로 3번 작품 <Guardian>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3번과 4번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님들, 작품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저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저 달항아리가 내부로 이런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 거죠? 저 위에 뚜껑 부분이 이제 막힌 게 아니고 뚫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기가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청소하는 문제만 좀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네, 한번 그, 예, 그거 한번 확대해 보시죠, 그 부분. 위에서 내려다보는 주둥이 부분. 몸체같이 그렇게 문양 식으로 재단된 걸로 되어 있나요? 완전히 뚫려 있지는 않죠? 몸체처럼 이렇게 그런 특수 그물망 같

은 그런 모습이죠?

○○○ 지금 설명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서.

○○○ 아... 향아리 자체가 타원이고 완전히 동그란 향아리가 아니고 아까 그 전에 도면상으로는 막혀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아니면 안쪽 부분이 보이는 건지.

○○○ 지금 옆에 부분도 조금씩 이렇게 뚫려져 있는 거죠?

○○○ 네, 네.

○○○ 네, 네. 유닛 작업이거든요.

○○○ 예, 유닛 작업이에요.

○○○ 네, 제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물질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 근데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점점부를 만들어서 꺼내서 할 수 있게 문을 조금씩 만들어서 하는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유닛 작업은 그게 좀 필수거든요. 아마 작가들은 그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 자, 공공작품으로서의 조형성에 대해서도 의견 좀 주시죠.

○○○ 이게 지금 건물의 용도가 데이터센터로 일단 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저기 달향아리의 문양 같은 그런 어떤 조형성 같은 것들은 세부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달향아리와 진돗개가 같이 좀 병행되어 있고, 사실 진돗개의 그 흰색은 좀 조형적으로 이게 어울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작 달향아리는 파랗게 색이 원래 진돗개 색깔인데 원래, 달향아리가.

○○○ 저도 덧붙여서 얘기 드리면 여기 이제 보면 K 문화를 상징하는 달향아리와 진돗개라고 뭐 달향아리야 워낙 이제 공론화가 된 어떤 소재이기도 하고, 많이 이제 다루기도 하는데 진돗개가 우리 이 K 문화의 어떤 그런 아이콘으로 될 수 있을 런지가 좀 의아심이 저는 들었고요.

저 조형물이 어떤 특정 장소, 뭐 진도에 설치된다거나 하면 아주 최적화 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왜 우리 인천에 저게 저 진돗개 하고, 저 달항아리하고 너무 이렇게 부조화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읽어보면 K 문화다. 진돗개가 K 문화인가, 그것에 대해서 작가가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네, 저도 그리고 조형적인 걸 좀 말씀드리면요. 이 부분에 앞서 여기 제시한 작품들을 보면 다 이렇게 환조로 되어 있는데 이 작품은 진돗개는 완전히 환조인데 지금 달항아리는 완전히 환조는 아니거든요, 약간 그렇게 된. 그래서 조각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완전히 환조와 그냥 반 정도만 환조 된 이런 것들이 조형적으로 맞는지 좀 그렇고 이게 규모가 달항아리가 4m고 그다음에 지금 진돗개가 한 2m 거든요.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약간의 사이즈에서의 그런 것도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색깔도 잘 어울리는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 글쎄요, 달항아리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왜 이렇게 타원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작품 설명이 따로 없죠.

○○○ 이분이 앞서, 이분이 하셨던 작품들은 평면이면 평면대로 이렇게 다 작품이 되어 있고 입체는 입체대로 완전히 환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작품은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같이 있는 공간, 같은 공간에 이렇게 하나는 환조, 완전히 환조. 하나는 환조가 아닌 작품이 이렇게 있는 거가 조형적으로 맞는지.

○○○ 달항아리를 환조로 저렇게 4m로 세우면 금액이 엄청나게 들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옆으로 줄이지 않았나 싶고. 예, 또 그렇다고 또 진돗개를 옆으로 또 줄이기에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싶

어서 마치 진돗개는 실사처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향아리도 그냥 구 형태로 할 거면 뭐 좀 크기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4m를 유지한다면 그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4m가 좀 안 되면.

○○○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작가분 또 방어를 해주는 느낌이 들까봐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걸 그냥 제 사건인데요. 이분이 여기 쓴 거 보면 유머러스하게 이제 작품을 제작했다, 이제 요 말씀을 쓰신 걸 보니 우리 전통적으로 매직아이라고도 하고, 그 눈속임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환조인 줄 알았더니 옆에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 뭐 이런 식의 것들. 이런 거를 유도한 게 아닌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아이디어 상에 이제 달항아리는 우리 거, 이제 우리가 생각해도 딱 그렇게 떠오르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진돗개는 진도에 있어서 인천에 왜 있냐, 할 정도로 아마 근데 이제 작가 선생님은 달항아리, 우리 것을 지키는 지킴이로서 진돗개를 앞에다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작가의 의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모르죠. 이제 그냥 생각이 나서 저도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앞에서 보면 이 작품이 별로 그렇게 그닥 그렇게 매력 이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뒤쪽에서 보면 뒤에 이렇게 달항아리 뒤에 살짝 진돗개 엉덩이가 보이는 그 사진이 있거든요. 봤을 때 이런 식의 어떤 것들도 이런 위치상으로 이제 뒤에서 보시는 분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는 의도한 구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얀색 진돗개를 쓴 이유가 바닥, 지금 이게 도면하고 진짜 똑같이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닥 색깔과의 조화를 조금 꽤 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사실 뭐 달항아리를, 달항아리하고 똑같이 만들 생각이었다면 색깔도 안 바꿨을 거고, 형상도 이렇게 타원으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작품으로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색깔도 변형하고, 그리고 형태도 완전 구에서 타원으로 만들고. 뭐 작가의 의도가 다분히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 저는 이 작품의 설치 위치가 지금 범위가 너무 넓은데 이 항아리랑 진돗개가 건물 앞에 있을 때랑 저 사이에 겹쳤을 때랑 그러니까 작품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건축물 미술이니까 주변 배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확한 설치 위치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정확한 표시가 됐으면 시도하고 있는지 작가분이 의도한 그게 이제 반영이 되고,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지, 있는지 그런 것들이 판단이 좀 될 것 같은데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아까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좀 공감하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저분이 달항아리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서 저렇게 했을 리도 없고. 그리고 색깔도 마찬가지로. 뭐 진돗개도 그냥 단순히 한국을 대표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관성을 의식하고 연관성을 만들어내고 하는 게 사실은 작가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기존의 팽배해 있는 일반적인 관계성이나 이런 것 만에 의존해서 작품을 하지는 않거든요. 작가가 이제 자기 생각의 방향을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유머러스한 것이든 아니면 달항아리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던 그런 거와 다 연관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작가만의 특별한 의도와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 제가 볼 때는.

○○○

그 앞에 첫 번째 작품 했을 때 제가 디자인적 요소가 너무 강하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작가의 작품을 보니까 본인의 작품 하는 스타일과 그 조형물, 건축물 미술 작품 여기에 같이 이제 조화롭게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연 어떤 지금 작가들이 건축물 미술 작품에 계획을 하면서 건축물 미술 작품을 위한 디자인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작품 세계와 연관시켜서 같이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물론 해답은 없겠지만 그런 어떤 그 두 부분을 잘 접목시켜서 표현하려고 하는 작가들의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이 작품을 봤을 때는 그 평소에 자기가 작품 하는 작품과 많이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아마 작가들이 자기 작품 세계를 떠나서 다른 작품으로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입장에서는. 자기 작품을 공공미술로 연결시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기 작품의 세계를 완전히 포기하고 건축물 미술 작품을 위한 작품을 만들 때 그것이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 다 어려운 길이지만 자기 작품성을 가지고 연결시키는 게 오히려 좀 떳떳하고 자부심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작품 채점해 주시죠.

(채점 중)

2. 부평구 청천동 422

4) <Firecracker>

위원장 다음 작품 4번 작품 <Firecracker>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4번 작품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네, 본 작품은 세 개가 연결돼서 만들어진 한 작품입니다. 전체 크기는 대략 가로가 한 3m 10 정도 되고 높이가 2m입니다, 총 전체 크기가. 그리고 여기 재료로는 유화로 돼 있는데 사실 뭐 디테일한 사진이, 부분에 확대된 사진이 없어가지고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기 작품 설명대로 하면은 실제 리본으로 제작된 것을 사진 촬영해가지고 그것의 어떤 부분을 확대해서 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견들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극사실주의 그림 풍으로 읽혀집니다. 이미지 크게 나온 부분 하나 있으면 띄워주실래요?

○○○ 그 평면으로 나왔을 때 항상 좀 궁금해 하는 부분이 사실 입체 같은 경우에는 3D상에서 그런 것들이 표현이 많이 가능한 것 같은데 평면은 제작을 미리 해놓고 그거를 심의를 받는 건지 아니면 입체처럼 어떤 평면상에서 포토샵이나 그런 데에서 표현을 해서 하는 건지 사실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작품도 그런 실제 어떤 그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포토샵을 해서, 합성을 해서 만들어진 건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만약에 그 실제로 설치되었을 때 여기서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와 어떤 비슷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위원님들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네, 그거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평면 쪽인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픽 작업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저렇게 3D에 올려가지고 아직 현재의 작품은 없지만 이렇게 그럴 거다라고 제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 작품이 있는데 그것을 똑같은 비율로 확대시키겠다. 그래서 자료로 낼 때는 실제 작품에 사진을 내고 크기는 이제 키우는 거죠, 같은 비례로. 근데 둘 다 정확성은 있고요. 최종적으로 설치될 때 또 감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설치될 때 제대로 된 위치에다가 제대로 된 작품을, 제안했던 작품과 똑같은 작품을 제작하고 설치되나 그것을 이제 검사하는 최종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 단계가 있는 걸 다들 알기 때문에 두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나중에 설치될 때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거.

서 기

검수요?

○○○

검수, 예. 검수 절차가 아주 엄격합니다. 검수도 엄격해 가지고 그때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하기 때문에 잘못된 일은 없었습니다, 그 동안.

○○○

지금 이 작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서류에 설명은 그건 안 해준 것 같은

○○○

네, 그게 없는 것 같아요.

○○○

회화는 잘 모르지만, 평면은 잘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투시도상에서 이 벽면 같은 게 이렇게 보라색 빛을 띠고 만약에 이게 진짜로 그렇다면 작품과 감독님들이 내부는 잘 해놓은 것 같아요.

○○○

아, 네.

○○○

이 작가에 대한 저런 자료는 혹시 없나요?

○○○

네, 처음, 처음 하는 것 같아요.

○○○

아, 그래요?

○○○

처음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인천에서는.

서 기

경력서 보시면 심의서류에 19페이지에 경력 쓰여 있습니다.

- 밑에 좀 내려봐 주실래요?
- 인천 세 번 했다가 두 번 되신 것 같아요.
- 원래 이런 류의 작품을 하시는 분이 맞네요.
- 여기가 지금 곡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 조형성이나 색감이나 대비와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걸로 보여 집니다. 조화로운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이미지로는.
- 그래서 제가 이제 평면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과의 조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또 봐야 될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자기가 했던 작품을 그대로 어떤 공간에 그 스타일로 갖다 놓는 것, 그런 것이 맞는 것인지 또 한 번 또 의문점이 좀 생기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체 쪽에서는 내가 이런 스타일 했다가 완전히 바뀌어서 공간에 맞는 디자인도 하거나 하지만 평면은 과연 그게, 그것 또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사실 의문점이 좀 생기는 부분도 있거든요.
- 평면... 예,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이제 본인 작업이 폭죽에 대한 작업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공공미술에 들어가는 작품도 그 연결성이 있고. 저는 그런 부분을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공미술에 들어간다고 전혀 새로운 재료라든가 조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동안 본인이 해왔던 거를 어떻게 보면 그 공간에 맞춰서 또 그걸 응용해서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좋게 보고 있고요. 또 이 작가의 이제 주제 보고, 폭죽이라는 것도 좀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축제라든가, 상품성이라든가 이런 주제들이 잘 와 닿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간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사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은 여기 나온 작품은 좀 화질이 안 좋아서

색상이 앞선 이제 공공미술에 걸리는 작품보다는 조금 다운된 느낌이 드는데 이 정도면 예, 믿을만 할 것 같습니다.

○○○

아마 작가들 입장에서 주어진 공간에 내 작품 중에서 어떤 게 어울릴까라는 고민을 기본적으로 할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본인 작품 중에서도 이제 그 공간에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 조각, 3차원 조각만큼 이렇게 판단 근거를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가질 필요는 없으니까 또 해당 실내 공간에 잘 어울리냐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맞추는 게 작가들이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

저는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이 심의도서에는 너무 사진처럼 나와서 사실은 사진을 꼭 이렇게 합성해놓은 것처럼 해서 어떤 평면에 그런 멋이라나 이런 게 좀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분의 작업을 보니까 이렇게 지금 오히려 회화의 느낌이 살아서 저는 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저게 이제 실제 그려지면 이렇게 이제 회화적인 느낌까지 살아서 조금 공간하고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네, 회화 작품은 조각 작품만큼 그렇게 살펴봐야 될 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채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점 중)

3. 미추홀구 학익동 595-28

5) <On Stage>

위원장

다음 작품 <On Stage>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5번부터 7번까지는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원님들, 본 작품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〇〇〇 일단 안전 쪽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조계산서를 보니까 충분히 검토는 했습니다. 지금 높이가 이게 한 15m 되기 때문에 아파트로 보면 한 5개 층 정도 높이입니다. 근데 지금 기둥이나 저 위에 있는 수평 부분이 상당히 좀 작아 보이기 때문에 보기로는 조금 왜소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건축 장식품이 이제 선정될 때는 여기가 지금 지하 3개 층인데 설치되는 위치가 지하 2층 바닥에 설치가 됩니다. 여기 지금 중량이 다 나와 있는데 기초판 크기도 상당히 큼니다. 3.5에, 3.5에, 높이도 한 0.6cm 정도. 문제는 이 장식품이 지하 2층 바닥에 이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거는 구조계산서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높이가 15m이기 때문에 저 위에서 어떤 고드름이 형성되면 그 고드름이 떨어졌을 때는 높이가 15m라 밑에서 안정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〇〇〇 그런데 이게 알루미늄 주물이라서, 알루미늄 주물은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중은 애는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14m인데 이쪽에 있는 인물들이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그냥 장식적으로 이게 투시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투시도면을 보면. 그래서 높이나 이런 걸 좀 고려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〇〇〇 지금 중정처럼 이렇게 뚫려 있는 부분인가요?

(“네” 하는 위원들 다수 있음)

○○○ 주변으로 짝 있고요. 하늘이 뚫려 있고요. 네.

○○○ 근데 이제 이 자체의 대한 자중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높이를 15m를 견디기 위해서 밑에 기초가 상당히 큼니다. 그게 지하 2층 바닥, 지하 층 슬라브가 견딜 수 있는지는 검토가 안 돼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 예, 저는 26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위층에서는 조형물 그래도 위가 조금 보이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공간에서 아래쪽을 즐기고, 위쪽에서도 즐긴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재미있는 요소가 있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전체적인 조형적인 부분은 사실 색채 면이나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 저도, 저는 사실 이 작품 되게 재미있게 본 작품인데요. 어쨌든 이 위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회전을 서서히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람도 거의 실선 사이즈로 올라가 있어서 좋은데 정말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은 색감이 조금 이게 형광 노랑인지 모르는데 이제 이게 색깔이 조금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 아까 26페이지 거기 보시면 지금 상층부에 사람들이랑 돌아가는 회전반경이 혹시 간섭은 되지 않는지 정확한 높이가 안 나와서. 이게 돌아가는 회전체면 회전반경이 잘 도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지 보행자들에게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좀 파악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이렇게 내려다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좋은 작품인데 그러니까 지하 지금 2층인가요? 지하 2층, 지하 1층, 지하 3층 아니, 지상 1층으로 봤을 때 밑에 있는 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기둥 이렇게 대만 보일 것 같아서 이게 전체적으로 한눈에 감상이 가능 한지,

이렇게 돌아가는 재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점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 모든 곳에서 똑같이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 이렇게 보면 중간이나 아니면 나머지 기둥 부분이 감상하는 그 넓은 부분이 너무 볼 게 없는 게 아닌가, 그냥 이게 작품인지, 그냥 건축물 기둥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 한편으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구성인데 뭐 파격이 위협할 수도 있고 참신할 수도 있는데요. 색깔 얘기도 나오셨고, 구조 얘기도 나오셨고, 또 모빌이라고 이제 움직이는 게 이제 분명히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 뭐 바람으로 자연풍으로 움직이는 건데 거의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좀 논쟁거리가 되는 작품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 ○○○ 선생님이 정말 보시기에 저 구조는 안전성에 절대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선생님?

○○○ 아닙니다. 그 구조계산서를 보니까 그거는 충분히 다 감안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는 없고요. 아까 말했던 그 기초판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파트를 지금 안 지었으면 그 슬라브를 충분히 반영을 시키면 되는데 지금 상태는 아마 지하주차장 형성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걱정스러운 거고. 두 번째는 구조 개선이나 이분의 작품을 보면 이게 움직이게 돼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게 돼 있는지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소음이 엄청 크거든요. 바람이 만약에 밤에 불면은 이게 지금 못 움직이게 어떤 스톱할 장치도 없어요. 근데 움직인다고는 돼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다 보니 만약에 밤에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는 그 소음을 어떻게 할 거냐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것까지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위원장님이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잘못하면 또 작품을 자꾸 넣으니까 웬만하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것까지는 조금 깊게 검토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그러면 대리인을 불러서 이것을 좀 물어보면 좀 어떨까 싶은데요.

○○○ 여기 와 있나요?

사회자 확인해보겠습니다.

○○○ 잠시 그러면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 이게 진짜 움직이는 거라면 움직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자 모셔왔습니다.

○○○ 작가분이신지, 관계자분이신지?

관계자 안녕하세요, 저는 ○○○입니다.

○○○ 아, 작품 제작?

관계자 네, 맞습니다.

○○○ 아, 작가분이세요?

관계자 아니에요.

○○○ 그 작품이 움직인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관계자 네, 맞습니다.

○○○ 움직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관계자 아, 네. 좀 설명을 드릴까요?

○○○ 예, 예, 예, 잠깐 설명해 주세요.

관계자 작품이 약 한 3.1톤 정도의 전체 무게가 있고요. 크기로는 전체 높이는 14.9m 어...

○○○

기본 채원 같은 건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요.

관계자

네, 네, 좋아요. 그런데 이제 가로대가 가벼운 바람에 회전하게 돼 있어요, 가로대가. 상부에 **이 있고. 근데 계산하고 있는 무게는 1.2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를 받쳐주는 **이 있는데 하중치가 29톤 정도 돼요. 상당히 한 5%도 안 되는 무게를 쓰는 거죠. 안전성에서 애를 잡아주는 볼 베어링이 있는데 애는 더블로 있어요. 애가 하중치를 최대 치로 먹었을 때 약 9톤을 먹어요, 쿵하고 부딪혔을 때. 근데 애는 32톤을 견딜 수 있는 베어링이에요. 가벼운 바람에도 잘 돌고 돌풍에서는 애가 돌다가 일정 회전이 되면 더 못 돌아요. 빙글빙글 자기 자리에서 유지를 하지.

○○○

혹시 이런 작업을 했던 경력이 있는 작가인가요?

관계자

네, 맞습니다.

○○○

아, 이런 거를 어디서?

관계자

이거하고 근사한 게 이것보다 큰 게 ○○○에 설치를 했어요, 작년에. 구조가 동일합니다, 구조가. 그리고 여기서 가까운 곳에도 한 99년도에 ○○○에서 설치한 적이 있고요.

○○○

높이가?

관계자

그때는 12m였었고, 올해 한 거는 19m였었고. 아, 22m였고.

○○○

구조는 비슷하고요?

관계자

네, 맞습니다.

○○○

근데 조그마한 공기의 흐름에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아니면 좀

관계자

가벼운 바람에 움직여요. 한 1.5에서 2세크 정도 그런

○○○

그럼 센 바람에는 빨리 움직이나요?

관계자

그렇지 않아요. 애가 자기가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자기가 도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7회전 이상은 절대 못 돌아요.

○○○ 예?

관계자 7회전 이상은 못 돌아요, 분당.

○○○ 제가 두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관계자 예.

○○○ 그 돌았을 때 그 소음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나요?

관계자 소음은 무소음이 맞아요.

○○○ 무소음이요?

관계자 예.

○○○ 이게 아무리 베어링이 들어가더라도 첫 번째는 이제 유지관리가 상당히 잘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제 유지관리를 해야 링이 거기에 대한 윤활유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지 관리 측면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소음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높이가 거의 15m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조금만 치우치더라도 소음은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건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관계자 예, 그러면 저 유지관리 측면에서 베어링을 돌기 위해서는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오일이요. 오일이 들어갈 때 구리스 0번이 들어가요. 0번이라고, 구리스가 나뉘져 있는 한 대여섯 가지의 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묽은 건데 애는 타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 유지를 하게 돼 있고, 밑에 베이퍼 베리어를 하나를 쓰는 이유는 상당히 자기 중심을 잘 갖고 부드럽게 돌기 위해서 함이에요. 그리고 애가 중심축,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심 비슷한 거잖아요. 편심에서 우리가 3mm를 세워놓고 휠 밸런스 하나 양쪽에 다 놔요. 그래서 휠 밸런스를 3mm에서 맞춰요. 9m에 이게 9m라면, 3mm를 센터에다 놓고 휠 밸런스를 맞추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은 전혀 없어요.

- 근데 이게 몇 년 정도를 보존을 해가지고 관리를, 누군가는 관리는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이 작품에 대해서.
- 관계자 두 가지가 이렇게 해선에 걸리는 게 있어요. **조명.
- 그러니까요.
- 관계자 조명은 300만 해선이에요. 그리고 애는 반영구적이고요. 베어링 **입니다. 거의 반영구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 그리고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저기서 만약에 고드름이 얼면, 땀하면 정말 그게 얼어서 떨어지거나 하면 그런 어떤 문제점도 발생할 텐데 혹시나 그런 부분들은
- 관계자 고드름에 관해서는 사실은 저희는 뭐 고민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 말씀 주셨으니까 고민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설치를 하면 항상 유지관리를 하잖아요, 찾아가서. 올해도 가서 봤을 때 전혀 그런 증상은 없었어요.
-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은 하셨어요?
- 관계자 아직은 확인 안 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용도로 늘렸어요. 여기 기초 독립 방식, 건물의 거치 방식 그리고 이제 개네들이 어디에 밑에가 지하 주차장이니까는 흙을 퍼냈을 때 밑에 그거 환산해가지고 구조 계산을 따로따로 잘 끝냈습니다.
- 그러면은 현재 이 작품이 설치된다고 보고 이 자리에 이미 지하 2층 바닥의 구조 계산은 다 포함을 시켰다는 거죠?
- 관계자 네, 했습니다.
- 그러면 이 작품보다 만약에 더 커지면 그 밑에 기초 구조계산해가지고 설치된 거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제 변화가 생긴다면.

관계자 어, 저희가 그걸 확인했을 때요. 우리가 3.1톤이었고 작품 순수 무게가. 흠 무게가 한 29톤 정도 됐… 흠 무게가 10 몇 톤이 잠깐만요. 10 몇 톤이고 기초 무게가 20 몇 톤이었어요.

○○○ 예, 그렇습니다.

관계자 그랬을 때 움직일수록 여유가 좀 많아요. 다른 작품이 들어오거나 다른 시설 쪽으로

○○○ 그러니까 이 작품이 선정되기 전에 이미 위치까지 다 선정해서 거기에 기초 보강을 다 했다 이거죠?

관계자 네, 맞습니다.

○○○ 이상입니다.

○○○ 좀 전에 저 인체 조형물에 대한, 컬러에 대한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컬러는 이 작가가 원래 의도해서 한 건지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작품이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관계자 아, 네.

○○○ 그 작품에도 저 컬러가 들어가 있는지.

관계자 예, 이 컬러는, 컬러 색상은 작가의 영역이에요. 근데 컬러 색상을 주변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없느냐는 이제 제 선택은, 저희 영역이에요. 이럴 때 애가 알루미늄 도장이에요. 알루미늄 도장은 해산이나 산이 높은 데 가면은 침하가 많잖아요. 침투가 많은데 사용하는 프라이머하고 서페이스가 그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우레탄 도장이 들어가서 UV컬러가 되기 때문에 색상 변화는 전혀 없어요.

위원장 작품 색상 문제는 지금 관계자 분한테 물어볼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할 얘기니까. 자, 이제 관계자분은 이제 내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관계자 감사합니다.

- 지금 관계자분 얘기를 들어봐도 우리가 좀 우려하거나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판단하셔서 작품을 점수를 매겨 주시기 바랍니다.
- 아, ○○○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안전이나 그런 부분은 문제없다고는 하는데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조건부로 그런 안전성을 철저히 지키는 그 한에서 우리가 통과를 시키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본인 담당자 들어오면 다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또 있으니까 그것도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통과됐을 경우에는 잠깐의 또 의견 나눔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채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채 점 중)

3. 미추홀구 학익동 595-28

6) <세상의 구조 IO-25-01>

- 위원장 자, 다음 6번 작품 <세상의 구조 IO-25-01>에 대해 사회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예, 6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총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 화면에 놔둬 보시죠.
-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공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분할이 되어 있고 바닥재도 보면 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주변 환경과

이렇게 어울림을 보았을 때 너무 복잡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설치되는 장소와 작품 간에 약간 부조화가 느껴진다는 말씀이지요?

○○○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예, 의견 계속 주시죠.

○○○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수면 위에 올라오는 조형물도 그 위에 이제 부유하는 느낌도 잘 들고 전체적으로 주변 환경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은 제 다른 시각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의견 더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렇게 독특하게 뭐 대단한 조형성이라기보다는 그냥 무난한 작품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앞에도 우리가 면을 쪼개서 한 작품이 있지만 이것도 역시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데 이건 조금 둥글둥글해서 그냥 온화한 분위기를 좀 내면서 어쨌든 좀 그냥 무난한 작품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네. 다른 뷰도 가끔 돌려주시죠. 색상은 빨간 색깔 하나만 들어가나요, 라인식으로? 5개의 형상 중에 다 빨간색 라인으로 통일돼서 들어가는 거죠, 모서리 부분에.

○○○ 아, 몇 가지 색이 있나요?

○○○ 안에 조명으로 색깔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 여기에 들어가는 작품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의 어떤 조형물, 조형성, 조형물이 갖는 건축 미술 작품이 갖는 어떤 그런 조형성보다 다른 어떤 독특한 방법을 도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공간을 해석하는 부분이 또 다른 어떤 공간보다 좀 고민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저 라인 조명은 작품의 일부는 아니겠죠. 워낙 연못에 있는 거겠죠.
 ○○○ 작품의 일부 같은데요.
 ○○○ 작품의 일부인가요? 라인이
 ○○○ 작품 안에 들어가 있는.
 ○○○ 아니, 아니, 저 물가에 있는. 여기 바로, 야경 같은 거 한번 봐주세요.
 서 기 야경이요?
 ○○○ 예, 요거, 요거. 테두리. 수변에 있는 테두리 같은 거. 저건 작품의 일
 부가 아니겠죠?
 ○○○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워낙 연못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겠죠. 자, 특별한 의견 없으신 분은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 점 중)

위원장 참고로 다음 7번째 작품하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3. 미추홀구 학익동 595-28

7) <PLAY MODULE>

위원장 자, 다음으로 7번 <PLAY MODULE>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7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그 아파트의 직선적 구조를
 통해서, 조형 요소를 뽑아내서 한 작품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 의견들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에 두 개는 스테인리스 같고요. 우측 거는 화강

석 같습니다.

○○○ 아주 그냥 미니멀한 작품인 것 같은데 사실 공간이라는, 아파트라는 공간 속에 놓여지는 것보다 어디 미술관 정원이나 그런 데 있으면 더 잘 어울리듯 한데 아까 그 앞에 두 작품하고 이걸 세 작품을 봤을 때 일반적인 어떤 시각의 작품 같지는 않고 작가의 작품성이 많이 들어 표현하려고 노력한 작품들 같습니다.

○○○ 이 아파트 단지 안에 보니까 갤러리 뮤지엄, 아베뉴? 갤러리 아베뉴라고 해서 이 길을 따라서 지금 이 조각품들을 쭉 배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세 작품 보면 다 제각각 특징이 있는 것들을 나름 이렇게 좀 해놓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공공성이라는 것을 일단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작가의 작품성도 저는 충분히 고려할 만하지만 이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요. 이 블록이라고 하는 사실 어린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거나 저희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하는 측면에서 작품 의도는 좋은데 놓여지는 공간이 조금 적합치 않은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 이게 작품을 들어가 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안전 쪽에 봤을 때 이게 지금 공공주택이거든요. 저는 이거 보고 딱 느낌이 작품 2개하고, 이것만 봤을 때는 그 아주 너무 죄송하지만 납골당 갔을 때의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컬러도 그렇고. 너무 생뚱맞게 느껴져 가지고 조금 제 입장에서 느낌은 그렇습니다, 작품을 욕하는 건 아니고. 아까 ○○○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서는 어울리는지 몰라도 공공주택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다하는 그런 의견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저걸 감상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이 나오는 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

○○○ 앞에 지금 유사한 작품이 두 점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거 포함해서 세 작품이 비슷한 유형의 작품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 공공성이라는 걸 자꾸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 작품은 공공성도 생각해 봐야 되고 예술성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지금 설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에 어린이들도 있고, 어머니도, 할머니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런 정말 모던하고 세련된 감각의 조형물을 어떻게 보실런지도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공공성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은 요 앞에서 봤던 어떤 새로운 시도의 작품에 비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도 내가 채점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평면 하는 입장에서 좋은 점인 거를 좀 주로 보게 됐는데 앞서 공공미술 작품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지 약간은 뻔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저는 사실은 좀 재미있다고 사실은 봤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작가 보니까, 앞서 작품들을 보니까 전시된 작품들이 이런 색조로 모듈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공공성의 측면에서는 너무 좀 색깔이 어둡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까지 나는 것 같은데 혹시나 색깔 정도를 바꿔서 하면은 여기 지금 전시 요거의 취지가 여기 형태에 뭐 블록,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정도로 조정하면은 느낌이 전혀 다를 것 같은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 그렇죠, 색깔만 바꿔도 완전히 달라지죠, 사실은.

○○○ 근데 이분이 전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색을 넣지 않고 작업을 하시는

분 같은데, 여기에 색을 넣자고 하는 건 작가의 어떤 그런 작품 세계를 좀 위배하는 일이지 않을까 싶어서 살짝 우려가 됩니다.

○○○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까도 초반에 우리 말씀하신 대로 작가의 작가성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올 때는 타협점을 찾거나 좀 그런 것을 염두에 뒀야 되는데 자기 작품의 작품성만을 주장하거나 강조하기 위해서 공공장소에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 이제 위원들이 색깔을 바꿔라라고 제안하는 게 아니고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준 거니까 저희들이 뭐 작가한테 색깔 바꾸면 해주고 안 바꾸면 안 해주겠다 뭐 이렇게는 나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중에서 색깔이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제안을 하셨던 거고 작가가 어떤 면에서는 색깔도 안 바꾸고 형상도 안 바꿨으면 그게 공공의 영역에서도 먹힐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뭐 나는 양보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온 건지 어떤 의도건 간에 그런 것을 두루 우리가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그 부분은 이제 권고라든지 조건부로 걸면 될 것 같아요. 강하게 내가 색깔을 바꾸고자 한다면 조건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

그 통과된 다음에 얘기고요. 만약에 통과는 안 되면 뭐 권고, 조건부가 다 필요 없는 거니까. 통과가 될 경우에는 그렇게 권고를 하든, 조건부로 하든 그건 제안해 볼 수 있겠죠, 작가한테. 예, 그렇게 됐습니다.

○○○

그 통과가 될 경우에 색을 만약에 작가가 안 쓰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볼 때 이쪽에 그 석재를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작가의 어떤 스타일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석재 재질로만 바꾸는 거니까 검은색이 약간 조금 이게 너무 건축 자재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이렇게 예술적으로 조금 좀 마이너스가 되

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리석 같은 거를 쓴다든지 뭐 아무튼 색깔이 있는 거던가, 뭔가 다른 석재를 쓰면 어떨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쪽 금속재질에다가 색을 넣으라고 그러면 ‘아, 나는 색을 쓰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하라고 한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건 어떤지, 조금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위원장 그러니까 권고사항이 적용된다면 나는 합격을 시키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합격한 다음에 권고를 하는 거고요. 색깔을 바꿔도 나는 아니다 싶으면 뭐 그 점수를 안 주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만약에 합격이 되면 이제 차후에 오늘 이제 최종 마지막까지 한 다음에 어떤 것을 조건부로 할 것인가, 권고로 할 것인가 합격 작품들 중에서 또 잠깐 의견이 교환될 겁니다. 그때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색깔을 넣으면 나는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시는 분 합격점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신 분은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 점 중)

4. 남동구 논현동 677-5

8) <음악의 정원>

위원장 다음으로 8번 <음악의 정원>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8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저기 안전에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저 나팔이 있는 부분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죠? 이 나팔 부분으로 물이 들어가서 밑으로 물이 빠져나오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재질이 알루미늄입니다. 겨울에 물이 들어가서 이게 얼면 이제 팽창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작품이 아무리 두께가 있다 하더라도 추후에 작품에 대한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나팔 부분에서 위에 부를 막지를 못한다면은 하부 쪽으로 들어온 물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조금 변경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아무리 경량이지만 높이가 한 4.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었을 때 조금 움직일 우려가 있는데 밑에 앵커가 깊이가 한 20cm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20cm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리고 다른 거는 잘 제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나팔꽃, 백합인지, 이게 꽃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한 통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얀 꽃 위에 노란 꽃이 위에 올려져 있고, 그 위에 또 하얀 꽃이 올려져 있어서 물이 들어가서 안을 이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아, 저는 위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7페이지랑 8페이지를 비교해 보시면, 8페이지 보시면 작품이 굉장히 깔끔한데 볼륨감도 더 살아나는데 7페이지는 뒤 기둥 때문에 작품이 너무 좀 느낌이 반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치도를 봤을 때도 지금 림이 있는 곳에 출입하는 그 진입로 부분에 위치해 있는 것 같고 위에 첨부된 사진 보면 나팔관의 관 밑에 아랫부분이 계속 보행로에 그 발에 걸린 위치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꼭 여기여야만 하는지, 위치에 대한 선정을 다시 한 번 고려할 수는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그 약간 조감도 비슷하게 있어서 마루 형식으로 나무가 되어 있고, 그게 마치 그 이렇게 도보로 지나다니는 곳과는 별도로 이렇게 구획된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발걸려서 넘어지고 이런 문제는 큰 문제 같지는 않고요. 기둥과 작품과의 그 어울림 또는 조형성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 예, 저도 공간을 이렇게 활용하는 거는 작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뒤에 기둥이 사실 굉장히 이 작품을 보는데, 감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되는 요소로 보여지고요. 26페이지를 보면 옆쪽에 이렇게 잔디가 있는데 혹시 그쪽으로는 안 되는 건지 이 백합 이미지라고 하면 오히려 잔디에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둥에서 조금 분리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 네, 설치 장소의 문제가 지금 가장 논쟁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설치 장소. 뭐 특별히 장소가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건물 구조상. 그림에도 불구하고 장소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너무 기둥에 붙은 건지 위치에 따라서 25페이지하고, 26페이지하고 느낌이 많이 다르고. 25페이지를 보면 기둥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 같고, 26페이지 같이 좀 내려다 보면 기둥에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게 정확한지 잘 모르겠네요. 24페이지가 맞는 건지. 아마 작가야말로 여기다 설치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했겠지만 설치 위치는 작가가 선택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 작품도 만약에 뭐 통과가 된다면 그 위치 문제는 한번 제기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말고 이제 작품에 관해서만 의견을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 혹시 이거 했던 작품들 없나요?

서 기 그 심의서에 있는 경력서 보여드릴까요?

사회자 심의 이력에도 두 건, 두 작품이 있다고 나와 있고요.

○○○ 이 꽃이랑 나팔, 이런 걸로 한 작품은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 작품도 이제 통과가 될 경우에는 그 위치에 대한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품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가 일단은 중요하니까 그거에 준해서 작품만을 가지고 아마 점수를 매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 때문에 작품이, 위치 때문에 작품이 떨어지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요. 일단은 작품을 먼저 보시는 게 좋으니까. 만약에 작품이 통과됐는데 위치 못 바꾸겠다고 그러면 조건부로 달아야 되겠죠. 위치가 옮겨지거나 조금 달라질 경우에 합격이다라는 조건부를 달아야 되겠죠, 만약에 당사자가 문제시하지 않는다면. 이 작품, 이 자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위원님도 계신가요, 혹시? 뭐 그렇다면 뭐, 합격 이후에 한번 간단하게 조건부인지, 권고인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위원장 채점해 주실까요?

(채 점 중)

5. 청라동 157-11

9) <자연의 숨결>

위원장 자, 다음으로 <자연의 숨결>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9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평면 작품입니다. 그리고 새로 교체된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전에 통과를 못해가지고 재심의하면서 작

가가 바뀐 겁니다. 새로운 작가입니다.

○○○ 저는 이전 작품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재료가 좀 여러 가지를 섞어 썼다고 라고 하는데 조금 정확하게 어떤 재료들을 썼는지를 조금 알고 싶었습니다.

○○○ 사실 평면에서 믹스드 미디어라는 말을 사용할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본 작품 같은 경우에는 믹스드 미디어라고 쓰면 안 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믹스드 미디어는 두 가지 이상이 섞여서 어떤 재료인지 알아볼 수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명칭인데 본 작품은 부분 부분이 특별히 어떤 특정한 재료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 특정한 재료를 서술적으로 나열해줘야 되는데 이 작가는 그냥 일반적으로 별 생각 없이 그냥 믹스드 미디어라고 쓴 것 같습니다.

○○○ 이 작가의 작품이 없나요?

○○○ 심의 서류에, 심의 서류에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있습니다.

○○○ 근데 평면 작품이 크기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가격 대비 좀 너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 여기 기존 작품에는 기법이 또 이 명기돼 있지 않는데요. 아까 심의, 그 작가 작품을 보면은요, 예. 기법이 명시돼 있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온 작품도 현재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라 그냥 시뮬레이션상의 작품인 듯 보이는데.

○○○ 그러니까 별로 재료를 기입하는 거에 대한 뭐 그런 세밀함이 없는 거 같네요. 어쨌든 뭐 그런 실수야 뭐, 우리가 심사하는 데 크게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 작품의 이제 조형성이나 작품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 친절하게 제시해 줬으면 훨씬 더 평가하는 데 좋았을 텐데.

○○○ 그리고 이제 평면에서 이 작가들의 기법을 명기할 때요. 믹스드 미디어

어라는 것은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이게 혼재돼 가지고 표현되는 기법인데 최근에는 이제 거의 다 믹스드 미디어라고 하면 출력에 의해서 많은 작품들을 제약을 해요. 특히 이제 이런 미술 작품, 건축물 미술작품에 들어오는 작품들을 보면 믹스드 미디어라고 하는 작품은 거의 이 출력. 근데 이제 실제로 설치돼 있는 현장에서 그 작품을 보면 출력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보여요. 너무 그 건축물의, 건축물에 비해서 좀 저렴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기법에 대한 명시를 확실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네.

○○○

네, 제가 보기에 지금 여기 심의서류의 작품 중에 가운데 작품이랑 되게 많이 유사한데요. 이번에 제시된 작품은요. 그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꽃이 있는 게 콜라주 붙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린 부분도 사실은 재료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보통 이제 회화하시는 분들은 대략 짐작할 수 있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서양화 베이스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제시한 작품은 완성작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컴퓨터로 이렇게 작업하기가 쉽지 않은 정도거든요.

위원장

네.

○○○

네. 그리고 여기 뭐...

위원장

쭉 더 확대해 보세요, 최대한.

○○○

공간에는 사실은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작품들보다는 훨씬 색상도 화사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작품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만약에 이게 이제 완성된 작품이면은 조금 더 확대하기는, 좀 크게 조금 만들기는 뭐하고 여기 보면 사전 심의 작성한 거 보니까 조금 좀 더 커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보니까 더 커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완성작이면 그건 불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제가 봐서는 또 완성작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이 공간에는, 제 입장에서는 좀 잘 어울리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재료를 이 대행인이 와서 얘기를 해 줄 수 있을까요?

사회자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연락처가 적혀 있어서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 재료는. 네.

○○○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아요.

○○○ 이게 재료가 패브릭 작품이네.

○○○ 네?

○○○ 패브릭, 천.

○○○ 패브릭인 것 같다고요? 아

○○○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패브릭 같이 보였거든요.

○○○ 네, 이게 텍스처가 분명히 뚜렷한 작품인 것 같아요.

○○○ 아, 천은 이렇게

○○○ 네, 네.

○○○ 근데 저 크기의 패브릭 작품이면 저건 대단한 작품이죠.

○○○ 세로는 높이는 좀 작아도 가로는 상당히 기네요, 2m가 넘는 작품이니까. 세로는 되게 91cm밖에 안 되니까. 작품성은 뭐 상투적이지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예, 놔두십시오. 예, 그럼 채점해 주세요. 평면 작품이니까.

(채점 중)

6. 송도동 30-6

10) <밤하늘-별이 내린다!>

위원장 예, 다음으로 10번. <밤하늘-별이 내린다!>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10번부터 12번까지는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현장에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그래픽이 있나요? 현장 설치 뷰에서. 예, 이런 뷰에서 사람이 있는 거 없나요?

서 기 사람이 이렇게 투명하게

○○○ 아, 투명하게 돼 있네요, 오른쪽에. 사람이 있어야지 규모가 확실하게 느껴지니까. 저 바닥 무늬 별은 뭔가요? 원래 건축물인가요? 작가 작품인가요? 아, 작가가 바닥까지 저렇게 한 거군요. 아

○○○ 근데 전의 작품보다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 네. 이미지만 봤을 때 되게 작아 보여가지고 아까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 확실히 느낌이 다를 것 같아가지고. 아, 오른쪽에 예. 오른쪽에 투명한 사람 나오는 거를 잠깐. 그전 거. 이거 바로 전. 아, 왼쪽에 있네요, 사람이 하나. 아, 이렇게 너무 안 보이네. 저 걸 뭐하러 넣었지. 규모가 저렇습니다, 사람 크기가 저만하고.

○○○ 15페이지에 사람 크기와, 작품의 크기를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 네.

○○○ 14, 15에.

○○○ 네. 제일 높은 크기가 6m 70이네요, 끝이. 안전 입장에서는 괜찮은가요?

○○○ 예, 안전 보니까 만족을 했더라고요.

○○○ 네. 안전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저는 사실 작품에 대한 것보다는 명판 위치가요, 네.

○○○ 네, 명판 위치.

○○○ 네, 지금 이 아래 바닥에 별도 작가의 작품인 것 같은데 그거를 벗어나서 작품 외쪽으로 좀 해놓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 아, 작품 바깥으로요?

○○○ 예, 별 바깥으로

○○○ 네.

○○○ 옮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지금 현재는 맨 오른쪽 거 앞에 있는 거죠, 명판이?

○○○ 26페이지 보시면, 네. 위에서 본 모습 보시면,

○○○ 네.

○○○ 네. 오른쪽에 지금 검은 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게 바깥으로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네.

○○○ 부결된 작품보다 지금 작품이 색깔도 많이 좀 화려해진 것 같고, 고민도 좀 한 것 같아서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지난번에 부결됐을 때는 아마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많이 그

○○○ 제가 볼 때도 바닥하고 같이 아예 별로 이렇게 구성을 한 게 되게 이렇게 꽤 정성들여서 한 것 같아서 좋아 보였습니다.

○○○ 네, 맞습니다. 그 1인용 날개 벤치는 있는 게 나올까요? 없는 게 나올까요?

○○○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 걸어가다 걸려 넘어지고.

○○○ 작품에 방해만 된다고 생각을 해서.

○○○ 저도 없는 게 나은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 방해 요소가 되는.

○○○ 네, 그냥 군더더기 같은 느낌이 살짝 들죠. 그거는 뭐 이제 합격하게 되면, 권고로 하면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 대신에 어떤 작품을 좀 키워달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위원장 아, 네. 그런 의견도 괜찮습니다. 대체로 의견이 나왔으니까 채점해 주시죠.

(채 점 중)

6. 송도동 30-6

11) <자연+생명+순환>

위원장 네, 다음 제안번호 11번. <자연+생명+순환>에 대해서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11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좀 편안하게 작품을 봤던 것 같고요. 뭐 앞에 무슨 기하학적인 것도 있고, 추상도 있고 하지만 약간 이렇게 좀 실사처럼 구상화된 게 상큼한 색깔로 이렇게 앞에 놓여 있는 것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상큼하게 본 작품입니다.

위원장 네.

○○○ 저 색상 면에서도 보기가 좋고. 근데 이제 작은 열매에 앞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조금 위험해 보이지 않나. 표시 상에 튀어나온 게 그게 1,000밖에 안 돼가지고 좀 이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네. 둘 중에 작은 거에 있는, 뽕족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설치하는 위치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접근하기 쉬운 장소인지 아니면 이렇게 작품만 딱 놓이게끔 밖에서 바라보게끔 된 위치인지를 정확히 모르겠네요. 사람이 다니는 보도겠죠, 주변이?
- 2층 중앙 상부 오픈 공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 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네요.
- 7페이지 보시면 중앙 광장이 딱 가운데 있어서.
- 7페이지요?
- 27페이지 지도에 보면 동그란 광장 나온 게 있어서 저도 시설도 업무 시설인데 나와서 이 작품 보면 상큼한 광장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럼 채점해 주시죠, 위원님들.

(채 점 중)

6. 송도동 30-6

12) <바다의 아이들>

- 위원장 자, 다음으로 <바다의 아이들>에 대해서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예, 12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작품에서 더 하는 것보다 좀 뺐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무지개 색깔이 조금 너무 여기에 설명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구름도 너무 설명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지 않나 그런 생

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무지개 색깔이 너무 탁해 보여서.

○○○ 무지개 색깔이 저 전체적인 어떤 조형성을 해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그거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아이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나 그 상황들이 잘 묘사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무지개 색깔보다 물병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면서 돌고래와 이런 동심적인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 나오는 게 재미있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밑에 병에 붙어 있는 구름들 하고 산수화, 이 산 같은 게 너무 쓸데없이 많이 이렇게 붙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뭐 무지개 같은 거는 물에서 많이 비춰지니까 색감이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주변에 붙은 구름과 산이 좀 불필요하게 붙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네. 사실 상단에 아이들하고 돌고래의 그 매끈하고 심플한 느낌이 밑으로 내려와서까지 연결이 되면 일체감이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작가 입장에서는 뭔가 더 해달라는 주문보다는 빼라는 주문은 뭐 반기는 일일 수도 있겠는데, 한편으로는. 만약에 작품이 통과가 되면 뭐 조건부라기보다는 권고 정도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

○○○ 아니, 애 조건부로 해주시면 안 돼요?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위원장 예, 그럼 뭐 강압적으로 하면 조건부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또 다른 작품성에 대한 의견 있으신가요? 특별한 내용 없으시면 채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중)

집계결과 발표 및 조건부, 권고 논의

- 사회자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네, 저 조건부나 권고 내용을 조금 의견을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번 작품에는 조건부로 하부 기초 및 앵커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이 나왔는데요. 그것을 권고보다는 조건으로 해야 되겠죠?
- 네, 조건으로.
- 위원장 예, 조건부로 제안하는 걸로 하고요. 또 다른 조건이나 권고사항 있을까요? 1번 작품에 대해서.
- 명판 오타 난 거 이런 것들도 다 지적을 해줘야 할까요? 나중...
- 어디요?
- 명판에 이렇게 새겨지는 글씨들, 오타 난 것들이 있는데
- 아, 그거는 뭐, 그거는 권고로 한번 살펴보라고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이게 지금 보면 ‘몽환적인, 몽환적인의 이미지’ 해서 잘못 표기가 돼 있는데요.
- 위원장 명판에 오타 수정. 요청. 네, 1번 조건부. 하부 앵커 및 기초판... 내용 제시라기보다는 기초판, 여기에 보강이 필요하다고 써야 되지 않을까요?
- 서 기 보강 필요, 이렇게 할까요?
- 위원장 아, 네. 필요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니까. 또 다른 사항 없으시면 그

다음에 이거 다음 작품 하나 제안. 5번, 예.

서 기 5번이요?

위원장 예, 5번이요. 뭐라고 기입하면 좋을까요, 위원님들. 구조적 안정성 확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서 기 구조적 안정... 안전? 안정?

○○○ 안정, 안정이 맞지 않을까요?

○○○ 안정.

서 기 안정성.

○○○ 설치 자체가 이제 구조적으로 안정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안전은 확보가 되는 거니까, 구조가 안정되면.

서 기 안정성.

○○○ 네, 안정성 확립 아니면 그게 더 확고하죠, 확립. 아니면 또 다른

○○○ 지금 저게 이제 제일 문제가 이 작품에 대한 이제 개런티 문제거든요. 관계자는 이제 돌더라도 소리가 안 난다고 그러는데

위원장 네.

○○○ 그걸 저 그러면 몇 년 동안을 보장을 하는 거냐, 그걸 어떻게 저도 적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뭐 개런티를 3년을 뽑는 건지. 아까 그 분은 반영구적이라고 그러는데 반영구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저게 지금 저기 이동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개런티 문제를 뭔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구조적 안정성 확보 및 하고 동작 시 뭐 소음 발생 제거, 해야 되나요? 동작 시 소음 발생.

서 기 제거.

위원장 제거 또는 뭐

서 기 방식 제시 이렇게 하나요?

위원장 네. 제거 방식 또는 뭐. 그래요, 그게 좋지 않을까요?

○○○ 네, 네.

○○○ 예, 예. 뭐 본인들이야 뭐 다 괜찮다고 얘기하죠. 그래도 저런, 위원님들이 저런 조건을 애초부터 내세웠다는 것이 기록이 남아있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더해서 설치 위치에 대한 것도 써야 되지 않나요? 설치 위치의 기초 안정성,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조 검토서만 보고 그냥 오케이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서 기 구조적 안정성?

위원장 예, 구조적...

서 기 안정성 자료 제시. 이렇게 하나요?

○○○ 예, 예.

서 기 괜찮을까요? 이러면?

위원장 구조적 안정성.

○○○ 그것도 중요한데 그 현장에 설치되었을 때 그것을 그 거기하고 협의
를, 여기 건물 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을 해요. 작가
만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건물주하고도 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
든요. 그런 걸 만약에 지금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작가는 옳
다고 하고, 건물주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어떤 협의
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을 확실히 해두고 넘어가는 게 작가도 그렇고, 서로 그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 지금 아까 그분은 이미 거기에 설치될 거라 생각하고 그 슬라브에 대
해서 구조 보강을 다 했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 말씀처럼 그 설치 작품하고, 위치하고, 그다음에 그 구조물하고
이 3개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자료를 제시해라.

서 기 그러면 여기가 안정성도 겹쳐져 있는, 이 작품 자체에 대한 거고
 ○○○ 그렇죠.

서 기 설치 위치의 구조 안정성을 제시를 해야 되고, 또 별도로 구조에 대한
 안정성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그 설치 위치…. 예, 설치 위치에 대한 구조물 안정성
 서 기 위치에 대한 구조물.

○○○ 예, 안정성 자료 제시하면
 서 기 안정성 자료 제시.

○○○ 예.

위원장 작품 형태가 그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우려가 많이 되는 게 있네요, 진
 짜. 저런 거는 이제 조건부가 좀 많이 필요해도 꼭 써야 될 것 같습니
 다, 조건부에서.

○○○ 혹시 이거 지금 사전심의서에 ‘슬라브가 견딜 수 있는지.’ 이렇게 문
 구가 있는데 그 문구로 넣을까요?

○○○ 예.

○○○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 슬라브 밑에 있는 그 구조를 보강할 텐데 거기
 에 대한 자료 제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 그렇죠. 예.

위원장 네.

사회자 슬라브가… 예, 거기는 구조 보강.

서 기 슬라브가 견딜 수 있는지 확인 요. 지중 슬래브, 이렇게 하면 되나요?
 한번 이거 한번 봐주세요.

○○○ , 예.

○○○ 색깔에 대한 얘기는 권고로 할 필요 없겠죠, 작가의 자의적인 색깔이
 기 때문에.

○○○ 이거는, 이거는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네. 그러면 이제 8번 열어봐 주시죠, 8번.

서 기 8번 그림이요?

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설치 위치에서 벌어지는 그 기둥과의 관계. 설치 위치에 대한

서 기 조건부로 넣나요? 권고로 넣나요?

○○○ 권고를 하면 안 할 것 같은데요. 조건부 해서 할 데가 없으면 어떡하지, 옮길 데가 없으면. 어쨌든 설치 위치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서 기 설치 위치 재검토,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위원장 예, 재검토. 예. 그리고 권고사항은 없고요. 그러면 9번. 다음 9번 한번 가보시죠.

서 기 9번이요?

위원장 이거는 이제 조건부라기보다는 권고를 해야 되겠죠, 저 벤치 문제는. 1인용 벤치죠. 1인용 벤치, 뭐 또 용어가 있지 않나요? 1인용 저렇게 뭐 전문용어가 있던데.

○○○ 주변 벤치 제거.

○○○ 벤치라고 해야 되나?

○○○ 1인용 돌벤치라고 그래야 되나?

위원장 예. 구체적으로.

○○○ 원형 벤치라고 하는 게 맞죠. 왜냐면...

○○○ 1인용 원형 벤치. 1인용 원형 벤치.

서 기 1인용 원형 벤치. 아, 1인용. 하나, 둘, 세 개?

위원장 3개인가요? 네, 네. 명판 위치도 아까 얘기 나왔죠? 그 작품 설명, 설명 저, 설명석이 다른 데로 갔으면, 아까 의견 나왔죠? 작품 밖으로 좀

나가 있으면 좋겠다고. 작품 밖으로, 예. 작품 주변으로? 아, 주변이면 지금도 주변인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 예, 이 정도만 해봐도 될 것 같아요.

○○○ 위치 수정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아, 옳기라는 거구나.’ 라고 알아들
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작품. 마지막 제안 작품. <바다의 아이들>에
서 그 무지개, 산, 구름 이것에 대한 불필요의 의견이 나왔거든요.

서 기 조건부, 권고 어디로 들어가는 걸까요.

위원장 어디로 들어갈까요, 위원님들.

○○○ 권고로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예, 권고로 들어가죠, 그러면.

서 기 권고로 들어가나요?

위원장 뭐 작품을 제거하는 것까지 우리가 관여하는 건 그러니까. 무지개, 산,
구름. 산 맞나요? 그거 산 모양이죠. 둥둥 뜬 게 구름이고, 예, 그 세
가지 맞습니다.

위원장 자, 지금 조건부 내용하고 권고내용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죠?

(“네” 하는 위원들 다수 있음)

위원장 네. 그럼 이렇게 정리해 주시죠. 됐습니까? 자,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
겠습니다. 금일 12건의 심의 안건 중 12건 모두 가결되었음을 의결합
니다.

(의 사 봉 3 타)

위원장 이것으로써 2024년 제1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 동 박 수)

- 녹 취 종 료 -